

유행성출혈열 바이러스 발견

이호왕 박사 기념비 제막식 개최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의 바이러스를 발견한 이호왕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 행사가 10월18일 영북면 자일리 예철담 내에서 박운중 포천시장을 비롯해서 이호왕 박사, 김병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총장,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민국의학원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의 바이러스를 발견한 이호왕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 행사가 10월18일 영북면 자일리 예철담 내에서 박운중 포천시장을 비롯해서 이호왕 박사, 김병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총장,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민국의학원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비는 이 박사의 공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하고자 포천시사회가 주관하고 포천시가 후원하여 부지 630㎡ 규모에 기념비, 외비, 흉상 등을 설치하였다.

이호왕 박사는 1976년 세계 최초로 한탄강 주변에 서식하는 등줄쥐에서 유행성출혈열의 병원체를 발견하고 통일의 염원을 담아 '한탄 바이러스'라 명명함으로써 한탄강은 의학교과서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 이 박사는 유행성출혈열의 전파경로를 규명하고 1990년 혈청진단법과 예방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조기치료와 예방을 가능하게 하였다.

박운중 포천시장은 추사를 통해 "오늘 뜻 깊은 이호왕 박사의 기념비 준공식을 계기로 의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영원한 역사 속에서 삶의 등불로 후손들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역사 대대로 보존되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②9 검은머리물떼새(Oystercatcher)

“연미복의 신사”

홍당무같이 빨갛고 길다란 부리와 빨간 눈, 머리와 가슴은 검은색 깃털을 하고 있으며 배는 흰색을 띠고있어 흑백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연미복을 곱게 차려입은 깃벌의 신사 검은머리물떼새가 제 가슴을 열리게 합니다.

이 새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제 32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있는 귀한 새입니다.

서해안의 무인도에 사는 텃새이며 새끼새가 까치같이 생겨서 어른에서는 물까치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실제 물까치와는 전혀 다른 새임)

군산 외항에 위치한 작은 섬 유부도에는 검은머리물떼새, 마도요, 알락꼬리마도요, 쯤도요 등이 서식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 섬입니다.

지난 2월 새벽길을 달려 군산 외항에 도착하기 직전 현직인 신장남께 전화를 드렸더니 벌써 배를 몰고 나와 외항에서 우리를 반기기 위해 주시더군요.

동이 트기 전 서둘러 배에 짐을 싣고 10분 거리의 유부도를 향해 가는 우리는 깃벌을 가득한 시골 어른의 정취를 흠뻑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섬에는 경운기 한 대가 준비되어 있어 장비를 싣고 우리도 경운기에 올라 탈릴 거라는 백사장을 달려 현지에 도착한시간이 새벽 6시였습니다.

그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운기를 타고 달려가는 재미 또한 이번 탐조의 추억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백사장에는 벌써 부지런한 검은머리물떼새 1천여 마리가 나와서 먹이활동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검은머리물떼새의 영어이름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이새는 조개잡이의 명수입니다.

갯벌에 살고있는 백합, 비단고동, 동죽 등 조개의 껍질 속으로 뚫고 커다란 부리를 집어넣어 속살을 파먹는 모습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사람을 별로 경계를 안하는지 워장텐트를 친 우리 주변까지 다가와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다보니 초점거리 이내로 들어와 한 프레임에 전신을 담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었



2007.02.25 서천군 유부도에서 촬영

습니다.

그들만의 낙원 유부도가 개발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몇 명 안되는 섬 주민과 공존하며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평화롭게 살아왔지만 새로이 건설된 방조제의 영향으로 갯벌이 점차 사라지고 모래가 점점 늘어나고 하며 섬이 관광지로 개발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 현지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중국 해안에서 번식한 무리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번식한 검은머리물떼새가 3천마

리도 넘게 유부도 해안가를 찾아와 월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물때가 맞아야 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의 꼼꼼없이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출렁이던 바닷물은 쓸물같이 빠져나가 수평선이 지평선으로 바뀌어 버리고 갯벌에 나가 백합 조개잡이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지나가던 검은머리물떼새의 웃음거리만 되는 것 같더군요.

포천신문 조사업무팀 이상일 017-705-0994



創刊기념일 적극 協力키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70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지난 19일 제70차 정기회의를 갖고 12월15일 개최되는 포천신문 18주년 창간기념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이용 운영위원장은 "창간 기념일은 포천신문 가족 생일인 만큼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운영위원들이 광고와 구독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2월15일 포천신문 제18주년 기념식은 포천신문사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

원회가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윤이용 위원장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려운 시기를 맞고있다"면서 "12월로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 1월부터는 박승찬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승계한다"고 말했다.

최호열 발행인은 "운영위원회가 70차 회의까지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홈페이지를 있는 운영위원들은 포천신문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19일 제70차 정기회의를 갖고 12월15일 개최되는 포천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식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

주부명예기자단 제20차 임원회의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박혜자)은 10월11일 오전10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추계수련대회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두열 전무이사는 "추계수련대회에서 보여준 주부명예기자단의 단합된 모습은 앞으로 포천사회에서 주부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가 지면에 더 많이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부명예기자단 가정에 큰 행복과 하시는 사업이 무궁번창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 단장은 "다 함께 만들어 가는 주부명예기자단으로 단장 취임이후 처음 실시한 추계수련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과찬을 해주신 몸 돌 바를 모르겠다"며 "이처럼 단합된 힘을 토대로 주부명예기자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12월15일에 개최되는 포천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식에 1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주부명예기자단이 다같이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10월11일 오전10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추계수련대회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노력하기로 의결했다.

또 취재 및 보도기사와 칼럼 기고 등 기사제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자단의 글솜씨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글을 작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학생명예기자단 추천의 건은 포천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명씩 추천했으며 주부명예기자단 자녀중에서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새롭게 위촉식을 갖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또 포천신문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의결했으며 노후심이사, 장선옥 이사, 광복준 영종면 지부장, 김정선 의정부지부장에 대한 위촉식도 가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